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523-546.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523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 및 영향 요인*

심우정(沈雨貞)**
백선희(白善喜)***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3~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9차년도 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고 잠재유형과 학생 개인 및 대학의 환경 변수와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교양교육 수강 유형은 세 가지로, 교양과목 수강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과소 교양교육 유형', 글쓰기, 영어의사소통교육을 기본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체육·예술학 관련 영역 과목 수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집중 교양교육 유형', 글쓰기, 영어의사소통 교육에 더하여 수학 및 기초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과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강하는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양교육 수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별, 전공계열별, 그리고 대학의 소재지, 규모, 설립 유형에 따라 교양교육 수강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과소 교양교육 유형' 학생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규모, 사립대학에서 수도권 소재, 대규모, 국·공립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가용자원 규모가 학생의 교양교육 경험의 양과 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 개편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대학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교양교육, 고등 교육기관, 잠재계층분석

* 이 논문은 제12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조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조교수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의 교양교육(또는 공통교육, general education)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사명을 교육적으로 실현하는 영역으로 대학교육의 기초를 이룬다(Harris, 2006; Rudolph, 1990). 교양교육은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기초 공통과정으로 시민과 전문 직업인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기술, 지식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Rudolph, 1990). 대학교육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교육의 틀, 내용, 방법을 지속하여 혁신하였고, 교양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은 교수, 학생,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여 융합형, 창의적 인재양성과 같은 새로운 인재상을 내걸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적 틀을 구성하고자 전공 교육과정은 물론 교양 교육과정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양 교육은 융합형 인재양성의 기초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적 요구와 현대인의 복잡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손동현, 200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교육과정이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폭넓은 지식과 역량의 기반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교육과정은 목표의 부재와 불분명, 고교 교육과정과 차별화 부족, 교양과목 상호 간 연계와 균형의 부족, 전공에 의한 침해, 시간 강사 의존 심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홍후조, 2004; 손동현, 2010; 조인숙·전호재, 2017). 특히, 교양 교육과정 목표의 부재, 그리고 불분명의 문제는 교양과목의 이수 구분, 영역이 논리적, 이념적 근거로 설정되기보다는 대학 내 각 전공계열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교양 교육이 사회적 필요와 학생의 수강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교양 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이다. 국내 10개 국립대와 사립대의 전체 졸업 학점 대비 교양 교육 필수 이수학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립대는 전체 교육과정의 25.0%, 사립대는 26.5%를 교양과목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창동, 2012). 이는 1954년부터 1972년까지 교양 교육 필수 이수학점이 평균 30.6%, 1973년에는 더 증가한 32.9%를 차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이성호·강경석·박형택, 1989) 오히려 최근 들어 대학에서 교양 교육의 비중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대학에서 교양 교육과정이 전공 교육과정보다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융합, 초연결,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 교양 교육과정에 맡겨진 책무를 중하게 하고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

바지함을 목적"(고등교육법 28조)으로 한다. 여기서 인격의 도야로 대변되는 성숙한 시민과 전문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역량, 기술, 태도는 대학의 기초 공통교육과정인 교양 교육의 주된 책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에 따라 대학 교양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대개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양 교육과정의 근원과 형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더 최근의 연구는 고등교육 기관 수준에서 교양 교육의 운영원리와 구조, 편성 방식 등을 규명하고 있는데 대개의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이 특별한 이념과 원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의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대학의 목적, 즉 대학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재의 성격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의 성격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학 교양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 또한, 대학 특성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양과목 수강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 대학에서도 성별, 전공별로 필수 이수, 선호하는 교양과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양 교육과정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특성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 수강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향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운영의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교양 교육과정은 그리스의 자유시민을 위한 자유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과 미국의 공통교육운동(general education movement)의 전통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에서 주로 저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이외의 일련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미국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구조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교육적 전통, 문화적 특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특유의 논리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 대학에 입학한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 즉 전공교육에서 배양할 수 없는 직업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인성, 덕성,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유진·이연주(2018)는 인성과 지성 교육으로 교양 교육의 의미를 구분하고 이를 분

석틀로 미국, 영국, 중국의 일부 주요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를 분석했는데, 미국 대학의 경우, 지성교육의 측면에서는 진리(truth)를, 중국 대학의 경우 기초지식과 전문성을,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학문, 민족, 세계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는 미국 대학의 경우 민주시민 양성, 중국 대학의 경우 인덕, 지혜, 체력, 아름다움을, 싱가포르 대학의 경우 공동체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도덕, 조화로운 인간,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가별로 교양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목표와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 민족, 세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시사하듯이 교양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지식 이외의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면서 민족에 대한 책무성,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이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교양 교육과정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교양 교육의 학업성과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평구(2012)는 A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수리적 문제 분석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글로벌 역량, 취업 관련 지식과 기술, 창의적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유사하게 이보경·김은경·이재성(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인식한 교양교육의 학습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적 분석능력, 문제해결력, IT 자원 활용 능력, 국제화 역량, 취업 관련 지식과 기술, 창의적인 능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유형, 소재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 유형별로는 교육 중심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보다 기초 교양교육을 통한 학습성과에 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작문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공동체 능력,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수리적 문제 분석능력, 문제해결력, IT 자원 활용 능력, 국제화 역량, 자신에 대한 이해, 창의적인 능력에서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의 교양교육 제공 및 학생 인식

대학생들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은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즉, 대학의 소재지, 대학의 설립유형, 대학의 성격(예: 연구중심대학 vs. 교육중심대학) 등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교양교육 영역의 범위, 강조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교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는 대학의 순위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의 제공 경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일례로, Warner & Koeppel (2009)은 U. S. News와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와 대학별 유형에 따라 교양과목 이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단한 결과 대학 순위에 따라 이수 요구 학점은 대동소이하나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성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권 대학에서는 작문, 외국어, 철학, 사회과학, 건강 및 체육 관련 과목이 다소 적게 요구되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들에게 더 넓은 분야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유형별로는 연구중심대학(National Research Universities)에서는 작문, 역사, 자연과학, 과학실험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학부중심대학인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에서는 외국어, 수학, 인문학 과목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유형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경향은 일관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맥락에서도 대학의 특성에 따른 교양교육의 특성 및 실태를 진단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배을규·윤성일·정재일(2003)은 17개 대학을 임의 표집하여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양과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학들은 교양 교육과정을 필수교양, 선택교양, 전공교양, 특별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생활 및 직업기초능력 배양과 건전한 시민의식 향상 및 취업 준비, 대학생활 적응, 취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교양 과정 등이 제공되고 있어 교양교육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이 전체의 약 40% 정도를 교양과목 이수학점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 교양과목 안에 전공교육의 성격이 강한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교양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공교육으로 구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창동(2012)은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의 교양교육 운영 실태를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구분하여 지식적 사고 측면, 가치관과 태도 측면, 사회와 이념 측면을 나누어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교양과목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교과목 개설수는 사립대가 평균 약 294.1과목으로 국립대의 약 257.7과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과목에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하여 교양과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공과목의 연장인 경우도 있어 교양과목의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려 9년 전 실시되었던 배을규 외(2003)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대학들이 전공교육의 성격이 강한 과목들을 여전히 전공 교양이라는 명칭으로 교양과목에 포함하여 개설함으로써 교양 교육과정의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별 교양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학교 측의 편의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교과목 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고 운영 역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웅·정종원(2015)의 연구에서는 전국 67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교원, 교수·학습방법, 행·재정 운영 등 교양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진단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인격 및 인성 형성, 국제적 역량, 기초소양, 창의성, 지성 및 교양, 문화시민, 봉사정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60% 이상의 교양교육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은 약 2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저조한 편이고, 전공과목에 비해 교양과목에 대한 예산 배정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보경 외(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양과목 선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교양과목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에는 대학 설립유형, 소재지, 대학 성격(연구중심대학 vs. 교육중심대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박주호·유기웅(2017)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는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제공한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학생, 교수, 졸업생 모두 교양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몇 명의 연구자들은 한 개의 대학 혹은 특정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다. 백평구(2012)는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교양교육 수업에서 고차원적 사고보다는 사실이나 정보의 기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기·함정현(2017) 역시 H대학의 '사고와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영어'라는 특정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두 과목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배정된 교양과목 학점 수의 적절성,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의 관련성, 외국어 역량 향상 수준에 대해 남녀 학생 간의 인식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과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제 교양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교양교육의 교육목표, 편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어떻게 수강하고 있는지,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이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대학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 즉 대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실태를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 입장에서 제공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대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과목 구성과 형식(예를 들어, 필수 교양과 선택교양의 구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선택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과목 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제시한 교양과목의 틀이 반드시 대학생이 선택한 교양과목의 수강 유형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과 이에 연관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을 파악하고, 이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대학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9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층화 표집을 통해 선정한 전국 15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6,90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정환경 배경, 가정과 학교의 교육경험, 학습자 특성과 학업성취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참여 학생들은 조사 4차년도인 200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일부 특수 사례(예: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생)를 제외하고 7차년도인, 2011학년도에 최초로 대학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9차년도인 2013학년도는 2011학년도 입학생이 대학 3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대부분 저학년이 수강하는 필수 교양과목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시기로 진입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9차년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 참여자 6,908명 중 9차년도 연구 참여자는 3,681명(회수율 53.8%)이었으며, 이 중 대학생은 휴학생과 일·학습 병행자를 모두 포함하여 2,260명이었다. 2~3년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여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교양과목 배정학점이 적고 개설된 교양과목의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4년제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대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사한 이유로 특수한 목적과 형태로 설립되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 있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와 현재 학교에서 수강한 교양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어 다른 연구 참여자와 비교하여 교양과목 수강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 년도 조사 시점 현재 1~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대학의 저학년은 현재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 있기에, 이들의 경험은 교양과목 수강의 일부만을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교양과목을 충분히 수강하고 전공 교육과정으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큰 3~4학년을 분석의

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 동일 학교에 입학하여 계속 재학 중인 학생 1,052명이다.

최종 연구대상인 1,052명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여학생이 892명(84.8%)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이는 군입대를 위해 대학 저학년 시기에 휴학을 하는 남학생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는 389명(37.0%)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더 많았다. 사립대학 재학생은 788명(74.9%)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약 4분의 3을 차지하였으며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는 597명(56.8%)이었다. 소속된 전공, 학과의 계열을 기준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계열 전공자가 300명(28.8%)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공학계열이 175명(16.8%),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149명 (14.3%), 예체능계열 125명(12.0%), 의약계열 89명(8.6%), 교육계열 54명(5.2%) 순이었다[1].

〈표 1〉 최종 분석대상 기술통계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여자	892	84.79
	남자	160	15.21
전공계열	인문계열	149	14.31
	사회계열	300	28.82
	교육계열	54	5.19
	자연계열	149	14.31
	공학계열	175	16.81
	의약계열	89	8.55
	예체능계열	125	12.01
학교 소재지	수도권	389	36.98
	비수도권	663	63.02
학교 규모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597	56.75
	중소규모(재학생 1만명 미만)	455	43.25
학교 설립	국·공립	264	25.10
	사립	788	74.90

1) 2011년 일반대학 입학자 361,686명 중 여학생은 4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진학자는 36%, 사립대학 진학자는 79%였다. 전공계열별 입학자는 인문계열 14%, 사회계열 27%, 교육계열 5%, 공학계열 24%, 자연계열 13%, 의약계열 6%, 예체능계열 12%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1년 일반대학 입학자 전체와 비교하면, 여학생이 다소 많고, 공학계열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2. 분석방법

1) 잠재계층분석 변수

4년제 일반대학 3~4학년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의 잠재계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이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에서 제시한 교양·기초교육과정 구성에 상응하는 수업영역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은 교양교육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초교육은 대개 1학년 필수교양으로 지정된 과목인데,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논리적·비판적 사고교육, 문헌독해 및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 자연 세계 이해를 위한 기초과학 교육, 디지털 자료 해석을 위한 정보 문해 교육이 하위영역에 포함된다. 두 번째 영역인 교양교육은 교양·기초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골고루 습득하여 학문영역별 근본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분과학문으로 구성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은 주제별 영역 분류와 학문 분야별 영역 분류의 두 유형으로 교양 교육이 운영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별 영역 분류에 기반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세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양교육은 교양교육의 지향점이자 전제가 되는 영역으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소양교육은 기초교육과 교양교육과 달리 정규 수업뿐 아니라 비정규, 비교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심신단련과 미적 지각 및 구성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을 포함한 체육·예술교육, 배운 지식을 사회적으로 실행해보는 사회적 체험교육, 개별 대학의 교육이념, 철학을 위해 설정된 교양과목(예를 들어, 종교계 대학의 종교 과목)을 포함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의 영역 및 하위영역을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의 교양과목 영역

영역	목적	하위영역
기초교육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사고교육 영역 정보문해교육 영역 의사소통교육 영역Ⅰ(한국어) 의사소통교육 영역Ⅱ(영어) 의사소통교육 영역Ⅲ(기타 외국어)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
교양교육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습득하여 여러 근본문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갖게 하는 교육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소양교육	대학에서 학문 탐구의 궁극 목적이자 전제로, 포괄적 의미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체육, 예술 교육 사회적 체험교육 교시 구현/신입생 정착/학생지도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에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기초교육, 심화교양교육, 비학술적 체험교육, 도구적 실용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부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 중 기초교육, 심화교양교육, 비학술적 체험교육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에서 제시한 교양 영역의 구성과 유사하여 영역별 세부 분류의 과목 수강 여부를 잠재계층 분석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에 활용된 모든 교양과목 수강 변수는 이분 변수이며, 과목을 수강했다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수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대학 교양교육 과목별 수강 수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기초교육 영역에서는 의사소통교육 영역Ⅰ과 Ⅱ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70.7%, 81.4%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정보문해교육(컴퓨터, 교양PC 수업 등)을 최종 연구 참여자 중 과반 이상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교육 영역Ⅲ(기타 외국어)을 수강한 학생은 기초교육 영역의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39.4%였다. 교양교육 영역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크게 구성되며, 인문학을 수강한 학생 비율이 6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양교육은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기초교육, 교양교육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강한 학생의 수가 적었다. 소양교육 중 비교적 수강한 학생이 수가 많은 하위영역은 예술, 체육 과목으로 예술 및 체육이론과 실기를 교육하는 수업을 포함한다. 예술 및 체육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669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63.9%였다. 소양교육 중 수강한 학생의 수가 가장 적은 하위영역은 학교의 철학, 교육목적을 실천적으로 드러낸 과목들로 신입생 세미나, 학생지도 과목 등을 포한한다. 교시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은 34.7%의 학생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 교양기초교육 영역별 수강 학생 수 및 비율

영역	하위영역	수강한 학생	
		사례수	비율(%)
기초교육	사고교육 영역	476	45.46
	정보문해교육 영역	574	54.82
	의사소통교육 영역Ⅰ(한국어)	740	70.68
	의사소통교육 영역Ⅱ(영어)	852	81.38
	의사소통교육 영역Ⅲ(기타 외국어)	412	39.35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	454	43.36
교양교육	인문학	637	60.84
	사회과학	613	58.55
	자연과학	420	40.11
소양교육	체육 및 예술	669	63.90
	사회적 체험교육 (봉사활동 등)	424	40.50
	교시 구현/신입생 정착/학생지도	363	34.67

2) 대학 여건 및 환경 변수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은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 구성, 수강정책(필수 교양 영역, 필수 교양 학점 등)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별 대학의 교양과목 구성과 분배는 그 대학의 사명, 목표를 반영하여 설정된다. 즉, 대학의 특성이 학생의 교양교육 과목 수강 유형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양교육 과목 수강은 학생 개인의 선호, 가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양교육 수강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대학의 여건 및 환경 변수, 학생 개인 배경 및 특성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포함된 대학 여건 및 환경 변수는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및 학교 규모이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학교를 수도권 대학(=1), 이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비수도권 대학(=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립유형은 국·공립 학교(=1)와 사립학교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규모는 재학생 1만 명 이상 학교를 대규모 학교, 재학생 1만 명 미만 학교를 중소규모 학교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 배경 및 특성 변수는 두 가지를 포함하였는데, 학생의 성별과 전공이다.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이분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4년제 일반대학 학생의 교양교육 수강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범주형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에 잠재된 이질성을 발견, 이에 근거하여 복수의 하위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집단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군집분석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잠재계층분석은 군집분석과는 달리 확률추정에 따라 집단 분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군집분석은 자료 내에서 사례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는데 비해, 잠재계층분석은 자료가 여러 확률분포의 혼합으로 생성되었다고 전제하고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집단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한다면, 잠재계층분석은 로그분포를 가정하여 집단을 분류하게 된다(Magidson & Vermunt, 2002). 잠재계층분석은 확률추정에 근거하여 분류의 타당성을 가늠하게 하는 여러 지표를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비교적 정확하고 엄정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잠재계층 수의 결정, 즉 모형 적합도의 판정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mple adjusted BIC(이하 SA-BIC)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이 지수값이 작을수록 잠재유형 수가 최적인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Tofighi & Enders, 2008). 이 외, 모형의 분류정확도 추정을 위해 엔트로피 값을 활용하는데, 0.80 이상이면 분류의 정확도가 좋다고 판정할 수 있다(Clark, 2010). K개의 잠재집단 모형과 K-1개의 잠재집단 모형 간 적합도 차이검증에는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n Test)를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는 mplus 7.0와 stata 15.1을 사용하였다.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대학의 여건 및 환경, 학생 개인의 배경 및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교양교육 수강 잠재유형 분석 결과

기초교육 6개 하위영역, 교양교육 3개 하위영역, 소양교육 3개 하위영역, 총 12개 영역의 과목 수강 여부를 척도로 하여 4년제 일반대학생들의 교양교육 수강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1개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정보부합도 지수(AIC, BIC, SA-BIC), 분류의 질 척도인 엔트로피, 모형비교 통계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정보부합도 지수는 잠재계층의 수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감소폭이 크고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다소 감소

하였다가 그 이후 큰 변동이 없이 수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는 잠재계층이 3개인 경우 0.710으로 다소 낮은 수치이나, 모형 간 통계검증 값인 LMRT에 따르면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보다 3개인 모형의 LMR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잠재계층 3개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 교양기초교육 영역별 수강 학생 수 및 비율

잠재 유형수	정보부합도			분류의 질	통계적 검증*	
	AIC	BIC	SA-BIC	Entropy	LMRT	BLRT
1	16395.847	16455.348	16417.234	n.a.	n.a.	n.a.
2	15656.146	15780.108	15700.704	0.827	0.000	0.000
3	15404.685	15593.106	15472.412	0.715	0.000	0.000
4	15314.894	15567.775	15405.791	0.686	0.346	0.000
5	15288.869	15606.210	15402.936	0.714	0.305	0.013

* LMRT와 BLRT는 유의도(p-value)를 제시함. 단, n.a.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이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하여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확인하였다. 사후계층 소속확률은 1에 가까울수록 계층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하여 통상 사후계층 소속확률이 0.7이상이면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Nagin, 200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잠재계층 소속확률이 모두 0.85 이상으로 비교적 분류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소속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엔트로피 값이 다소 낮은 것은 일부 잠재계층(예를 들어, 계층2)에 한해 다른 계층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특정 계층에 속한 특수 사례가 전체 분류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5〉 사후계층 소속확률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1	0.873	0.108	0.020
계층2	0.096	0.867	0.037
계층3	0.035	0.076	0.889

최종적으로 선택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분류한 교양교육 수강 유형별 특징을 보면 〈표 6〉 및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의사소통Ⅱ영역인 영어교육과 체육 및 예술 교육에서만 교양과목

수강 비율이 30% 이상이고, 나머지 10개의 교양교육 하위영역 수강 수준은 그 이하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이에 첫 번째 유형을 '과소 교양교육'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의 17.5%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의사소통교육Ⅰ(한국어), 의사소통교육Ⅱ(영어), 인문학, 체육 및 예술 분야의 교양교육 수강 비율이 70% 이상으로 많았지만, 수학 및 기초과학, 자연과학의 수강 가능성은 10.2%, 16.7%로 낮았다. 즉, 두 번째 유형은 국어와 영어교육으로 대표되는 의사소통교육과 인문학, 예술학 등 전통적 교양교육이라 일컬어지는 영역에서의 과목 수강이 많았다. 이에 두 번째 유형을 '인문학 집중 교양교육' 유형이라 칭하였으며, 총 432명(41.1%)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한국어와 영어 의사소통 교육 수강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유형인 인문학 집중 교양교육 유형과 비슷했으나, 수학 및 기초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교양과목 수강 가능성이 86.6%와 74.2%로 높았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수업을 고르게 수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 번째 유형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는 41.4%의 학생들이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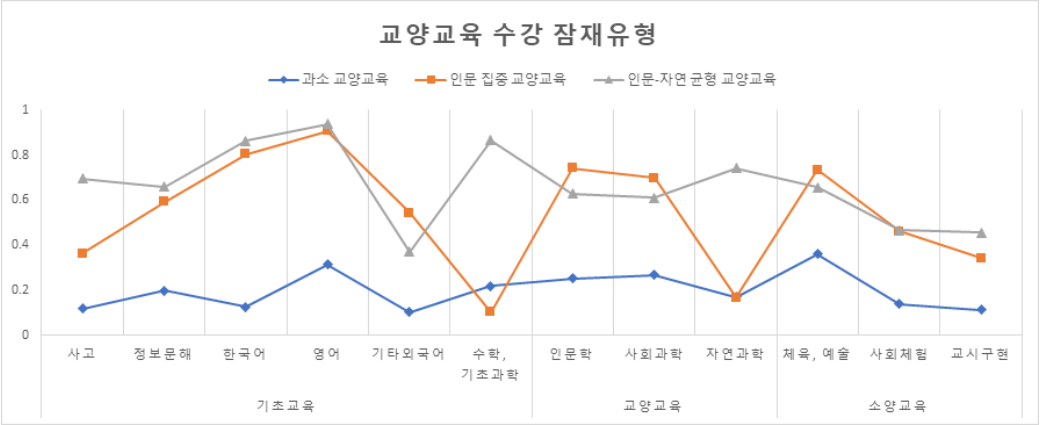
〈표 6〉 잠재유형별 교양교육 하위영역 수강 평균 및 구성 비율

영역	하위영역	과소 교양교육	인문 집중 교양교육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기초 교육	사고교육	0.118	0.363	0.695
	정보문해교육	0.197	0.591	0.658
	의사소통교육Ⅰ(한국어)	0.124	0.803	0.864
	의사소통교육Ⅱ(영어)	0.313	0.908	0.938
	의사소통교육Ⅲ(기타 외국어)	0.101	0.543	0.369
	수학 및 기초과학	0.218	0.102	0.866
교양 교육	인문학	0.252	0.743	0.628
	사회과학	0.267	0.697	0.611
	자연과학	0.168	0.167	0.742
소양 교육	체육 및 예술	0.360	0.735	0.657
	사회적 체험	0.137	0.461	0.465
	교시 구현/신입생 정착	0.111	0.342	0.455
사례 수 (%)		184 (17.5%)	432 (41.1%)	436 (41.4%)

2. 대학 및 개인 배경에 따른 교양교육 잠재유형 특성

대학의 환경 및 특성, 개인의 배경에 따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드러난 교양교육 유형 상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교차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과 〈표 8〉에 정리하였다. 우선, 성

별, 전공계열과 같은 대학생의 개인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라 교양교육 유형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교양교육 수강에 대한 잠재유형 분류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43.2%가 인문학에 집중하여 교양교육을 수강한데 비해, 남학생의 29.4% 정도만 인문집중 교양교육 유형에 속했다. 반면,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구성하였다. 전공계열별 차이를 보면,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계열은 인문집중 교양교육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열과 교육계열의 경우는, 인문집중 교양교육 유형의 비율이 65%를 상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65% 이상이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 속한 데 비해, 의약계열은 그 비율이 57.3%로 약간 낮았다. 전반적으로 교양교육 수강 수준이 낮은 과소 교양교육 유형에는 공학계열(22.3%), 의약계열(21.4%), 예체능계열(22.4%)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전공계열이 다르고 전공계열에 따라 성별 분포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전공계열별 성별에 따라 교양교육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전공계열 내에서 성별에 따른 교양교육 유형 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표 7〉 개인 특성에 따른 교양교육 유형 특성 분석

영역	하위영역		과소 교양교육		인문집중 교양교육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χ^2 (유의도)
			n	%	n	%	n	%	
성별	여학생		153	17.2	385	43.2	354	39.7	11.040 (0.004)
	남학생		31	19.4	47	29.4	82	51.3	
전공 계열	인문		18	12.1	97	65.1	34	22.8	239.773 (0.000)
	사회		51	17.0	167	55.7	82	27.3	
	교육		5	9.3	36	66.7	13	24.1	
	자연		23	15.4	23	15.4	103	69.1	
	공학		39	22.3	39	9.7	119	68.0	
	의약		19	21.4	19	21.4	51	57.3	
	예체능		28	22.4	69	55.2	28	22.4	
전공 계열 X 성별	인문	여	15	11.0	89	65.0	33	24.1	3.008 (0.222)
		남	3	25.0	8	66.7	1	8.3	
	사회	여	48	18.2	148	56.1	68	25.8	3.867 (0.145)
		남	3	8.3	19	52.8	14	38.9	
	교육	여	5	10.2	31	63.3	13	26.5	2.755 (0.252)
		남	0	0.0	5	100.0	0	0.0	
	자연	여	20	15.2	20	15.2	92	69.7	0.176 (0.916)
		남	3	17.7	3	17.7	11	64.7	
	공학	여	25	21.4	13	11.1	79	67.5	0.855 (0.652)
		남	14	24.1	4	6.9	40	69.0	
	의약	여	18	22.5	18	22.5	44	55.0	1.715 (0.424)
		남	1	11.1	1	11.1	7	77.8	
	예체능	여	21	19.8	62	58.5	23	21.7	3.608 (0.165)
		남	7	36.8	7	36.8	5	26.3	
전체 (1,052)			184	17.5	432	41.1	436	41.4	

다음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양교육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 규모,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33.9%)과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50.6%)이 더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과소 교양교육(22.2%)와 인문 집중 교양교육(41.8%) 유형이 많은 편이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44.9%) 유형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39.2%)가 많았다. 반면,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는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43.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36.9%)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과소 교양교육 유형의 경우, 대규모 대학보다는 중소규모 대학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학교 유형에 따

른 차이를 보면, 국·공립 대학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 집중 교양교육(30.7%) 유형이 많았다. 사립학교는 이와는 달리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44.5%)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37.6%)이 많았다.

〈표 8〉 대학 특성에 따른 교양교육 유형 특성 분석

영역	하위영역	과소 교양교육		인문학 중심 교양교육		자연과학 중심 교양교육		χ^2
		n	%	n	%	n	%	
소재지	수도권	37	9.5	155	39.9	197	50.6	35.289 (0.000)
	비수도권	147	22.2	277	41.8	239	36.1	
규모	대규모	95	15.9	234	39.2	268	44.9	7.093 (0.029)
	중소규모	89	19.6	198	43.5	168	36.9	
유형	국공립	43	16.3	81	30.7	140	53.0	20.957 (0.000)
	사립	141	17.9	351	44.5	296	37.6	
전체 (1,052)		184	17.5	432	41.1	436	41.4	

V. 논의 및 결론

1. 대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

이 연구는 4년제 일반대학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 수강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환경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중학교 3학년에 표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교 1~3학년 기간 동안 군입대로 남학생들이 종단연구 참여에서 이탈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여학생의 교양과목 수강 유형이 다소 더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4년제 일반대학 3~4학년 학생들의 교양과목 수강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인문학, 사회과학 및 예술학 영역의 교양과목 수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 인문학, 사회과학 등 전통적인 교양과목으로 여겨지는 수업에 더하여 수학, 기초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 교양교육의 전 영역에서 과목 수강 수준이 낮은 ‘과소 교양교육'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에 속한 학생 비율을 보면, '과소 교양교육' 유형은 17.5%로 가장 적고,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과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이 각각 41% 이상을 차지하여 학생 대부분이 수강 유형은 다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 중 다수 학생이 속한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과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은 모두 한국어 글쓰기와 영어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한 학생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인문학 교양과목과 사회과학 교양과목의 수강 비율도 두 유형 모두 60% 이상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학생들의 5분의 4 이상은 한국어 글쓰기, 영어 의사소통 과목을 기본으로 수강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양과목을 수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과목 수강 모형은 미국 대학의 핵심 배분 교양교육 모형(core distribution model)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핵심 배분 교양교육 모형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 선택기반 체제(elective system)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모형으로 수사학, 논리학, 문법 등의 자유 교양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의 전통에 부합하는 과목들이 글쓰기, 말하기 과목으로 계승되고 전공계열별 입문 과목을 고루 수강하도록 하는 계열 배분(area distribution)을 특징으로 한다(Brint, Proctor, Murphy, Turk-Bicakci, & Hanneman, 2009). 핵심 배분 교양교육 모형은 미국 학부교육에서 교양교육 유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학문 영역의 내용적, 실용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식견, 학문 탐구법에 대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학문 탐구의 기본기(글쓰기와 학문영역별 탐구법)를 연마하는 것이 마음의 훈련(discipline of the mind)으로 대학 교양교육을 통해 지향할 목적이며 세부적인 기술과 지식은 대학 교육 후에 개별적으로 언제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 마음의 가구(furniture of the mind)로 보는 예일 리포트의 교양교육 목적을 계승한 것이 핵심 배분 교양교육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교양교육 유형과 유사한 양상으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교양교육 수강 유형화를 하고, 유형별로 교양교육 하위영역의 과목 수강 양상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사회봉사활동, 인턴십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체험 교양교육의 수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유진과 이연주(2018)의 연구는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목표를 지성과 인성교육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성 교육은 학문, 민족, 세계를, 인성교육은 도덕, 조화로운 인간, 사회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체험 교양과목은 민주 시민사회에서 조화로운 인간으로 사는 데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들이다. 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양과목 수강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이 사회성, 시민의식 등과 관련된 인성교육 측면의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다양성 증가, 세계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소수자 문화와 역사, 세계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제고를 위한 과목을 교양 필수영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양 교육과정 혁신이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교양 교육과정 모형의 개발, 확산은 더

딘 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교양 교육과정 모형의 구성과 방향에 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 유형 중 '과소 교양교육' 유형은 전체의 17.5%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교양교육 수강이 적은 학생들로 분류되었다. '과소 교양교육' 유형은 다른 유형의 대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한국어 글쓰기, 영어 의사소통 과목의 수강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나 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충실하지 못한 교양교육을 수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 교양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대학교육 수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기조차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공학점 요구가 높은 학과에서는 교양 교과 성격이 강한 과목이 전공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분류, 제공되어 전공학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강창동(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전공교양이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양 과목의 수강이 충실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과소 교양교육' 유형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환경과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과 수강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혀 교양교육에 있어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개인 특성과 교양과목 수강 유형

교양과목 수강 유형은 학생의 개인 배경 변인 중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학생은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전공계열 분포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전공계열이 아직 존재함을 방증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의 내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성별에 따른 수강 패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유기웅·신원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위의 추천, 수업에 대한 부담, 학점 취득의 용이성, 친구 등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지 등 편의성과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양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우 관계 및 네트워크가 성별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은 각각 자신이 속한 전공계열 내에서 자신들의 편의성과 접근 가능성을 판단했을 것이다. 폭넓은 지식기반 습득과 같은 교양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성별화된 또래 네트워크에서 습득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멘토의 체계적인 지도에 따라 교양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 개인 배경 변인 중 전공계열 역시 교양과목 수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전공계열과 유사한 교양과목을 더 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인문, 사회, 교육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된 과목들이 전공교육 성격이 강한 과목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배을규 외, 2003). 교양교육이 전공교육에서 배양할 수 없는 인성, 덕성,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과도하게 수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전공과목 안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3. 대학 특성과 교양과목 수강 유형

교양과목 수강 유형이 대학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학의 소재지, 규모 그리고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과소 교양교육 유형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2배가 넘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소재의 수도권 대학은 다른 지역의 대학에 비교하여 대학의 순위가 높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수도권 대학으로 대표되는, 순위와 위세가 높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 학생보다 교양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위가 높은 대학 학생들에게 교양과목 선택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더 많이 허락한다고 보고한 Warner와 Koeppel(2009) 연구와 수도권 소재지 대학의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작문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국내 선행연구(이보경 외,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순위가 높은 학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양과목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 폭이 넓을 수 있다. 대안적으로 순위와 위세가 높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로 높은 학구열과 호기심으로 폭넓은 영역의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학 규모별로는 과소 교양교육 유형과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서는 대규모 대학의 학생들이 중소규모 대학 학생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학, 수학 및 기초과학과 관련된 과목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은 어느 정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자연과학 관련 교양과목은 대학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양과목 선택의 범위에 대해 보통 이하의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이보경 외(2010)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의 규모별로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 집중 교양교육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의 교양과목 수강 학점이 사립대학보다 높다는 강창동(2012)의 연구 결과와 앞서 대규모의 대학 학생들이 자연과학 중심 교양교육 유형이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대규모의 국·공립대학교의 재학생일 경우 인문-자연 균형 교양교육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규모의 국·공립대학교에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자연과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적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의 규모 등과 같은 대학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교양과목 제공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 중 학생들에게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양질의 교양과목들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소규모 대학과 사립대학에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기보다는 전공과목의 성격을 가진 교양과목의 이수 요구를 낮추고, 양질의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동(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18**(2), 83-107.

김용기, 함정현(2017).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616-623.

박주호, 유기웅(2014).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8**(2), 43-82.

배을규, 윤성일, 정재일(2003).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고등교육연구, 14**(1), 1-26.

백평구(2012).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교양교육연구, 6**(1), 431-466.

손동현(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2), 5-22.

유기웅, 신원석(2012).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45**, 31-54.

유기웅, 정종원(2015).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1-23.

윤유진, 이연주(2018).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 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12**(2), 259-286.

이보경, 김은경, 이재성(2010).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38**, 1-23.

이성호, 강경석, 박형택(1989).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인숙, 전호재(2017).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발전방안 탐구. **교육문화연구, 23**(6(A)), 133-155.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https://konige.kr/sub02_08.php에서 검색.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1&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에서 검색.

홍후조(2004). 4년제 일반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2**(3), 267-295.

Brint, S., Proctor, K., Murphy, S. P., Turk-Bicakci, L., & Hanneman, R. A. (2009). General education models: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U.S. undergraduate curriculum, 1975-2000.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0*(6), 605-642.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arris, M. S. (2006). Out Out, Damned Spot: General Education in a Market-Driven Institu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55*(3&4), 186-200.

Magidson, J. & Vermunt, J. K.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Rudolph, F. (1990).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A History*. University of Georgia Press.

Warner, D. B., & Koeppel, K. (2009).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A compar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58*(4), 241-258.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10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19일

* 심우정: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 서양사 전공)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HRD, 평생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고등교육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wjshim@hnu.ac.kr

* 백선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paik@ginue.ac.kr

Abstract

Exploring the Models of General Education in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South Korea*

Shim, Woo-jeong**
Paik, Sun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models of general education in Korean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9th year data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and the models of general education emerged from latent class analysis were compared across individual and college environment variables such as gender, academic disciplines, institutional type, size, and location. The research found three different models of general education: no or minimum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focused general education, and liberal arts,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balanced general educatio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models of general educ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genders and academic disciplin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dels of general education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stitutions with more than 10,000 enrollment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private institutions are less likely to have students with "no or little general educa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general education reform in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general education, college curriculum, college curricular reform, latent class analysis

* A preliminary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sponsor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